

SAMC | LAW REVISION

1. 美, 6월 15일 이후 반입 중국産 물품에 보복관세 25% 적용

6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중국産 물품에 적용하려던 미국정부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 관련 물품 반입기한이 6월 15일 이후로 바뀌었다. 해당 조치는 수출일이 5월 10일 이후인 중국産 물품에 적용하며, 수출일이 5월 10일 이전이라도 6월 15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청은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이 對중국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의 관세율 인상 조치를 애초 '6월 1일 이후' 중국産 반입물품에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반입기한을 '6월 15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6월 10일 안내했다.

[Read More](#)

2. 보세판매장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 보관기간 '1개월 → 10일' 단축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재판매를 위한 의무 보관기간이 1개월에서 10일로 줄었다. 또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시설요건 규정, 구매한도(미화 600달러) 등도 정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5월 31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서는 특허갱신 심사 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절차와 평가기준, 세관장 검토의견서 제출방법, 특허 갱신기간 등을 규정했다.

[Read More](#)

3. 中, 강제인증 면제 車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

중국정부가 통관 효율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면제 품목을 '先통관 後점검'한다고 KOTRA 베이징무역관이 5월 23일 소개했다. 중국정부는 제87호 공고문을 통해 통관효율을 높이는 무역편리화 조치로 5월 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을 면제받은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을 포함하며, 수입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美 CBP, 중국産 제품 보복관세 부과

미국이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인 수출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조·가공 등이 중국과 연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 판정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도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이 아닌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므로,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해진다. 관세청은 美 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 자료를 6월 19일 안내하며 업무에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Read More](#)

2. 車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5 → 3.5%) 조치를 올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술 용량과 도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한해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월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 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Read More](#)

3.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내·외국인 모두 미화 600달러 제한

입국장 면세점이 2달간의 준비를 끝내고 5월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모두 미화 600달러이며, 1개 품목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진열·판매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구매한도에 대해 내국인의 기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가 추가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총 3,600달러가 됐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우리나라와 영국이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안정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통상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2016년 6월)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2016년 12월)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

[Read More](#)

2. AfCFTA 공식 발효, 5년간 최대 90% 관세 철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5월 30일 공식 발효한 가운데 양허관세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여전하다고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이 6월 17일 소개했다. 요하네스버그무역관은 AfCFTA가 올 4월을 기준으로 총 22개국이 자국 절차를 마치고 AfCFTA 합의문 23조에 따라 5월 30일 공식 발효했으며, 6월 기준으로는 24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AfCFTA는 GDP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55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자 출범한 것이다.

[Read More](#)

3.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을 시작함에 따라 新북방지역과 신규 FTA 체결에 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6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지난 5월까지 양국 모두 국내 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표시대상 식품 중 제외 식품 으로 주류가 삭제 됨에 따라 앞으로 OEM 주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OEM 표시를 하여야만 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